



## 서울대교구장 임명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10월 28일 오후 7시(로마 시각 낮 12시) 정순택(베드로) 주교(만 60세, 1992년 사제 수품)를 차기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겸 평양교구 교구장 서리로 임명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교구장 임명과 동시에 대주교로 승품됐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우리 교구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할 새 교구장님으로 성령께서 정순택 대주교님을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구에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며 “든든하고 훌륭한 새 교구장님이 우리나라와 교회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길 모든 신자, 수도자, 사제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교구장으로 임명된 정순택(베드로) 대주교는 서울대교구장 임명을 받고 “하느님은 그야말로 ‘beyond’이시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넘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계획이나 생각을 우리가 미리 가늠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다.”고 첫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마음이 무겁고 두렵다.”라며 “부족한 제가 훌륭하신 전임 교구장님들의 길을 잘 따라 좋은 사목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정 대주교님의 깊은 신앙과 겸손함, 화합과 경청을 중요시하는 인성, 그동안의 사목활동이 임명에 큰 작용을 했을 것”이라

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대교구가 더욱 영적인 성장에 매진하기를 바라는 교황님의 바람이 있을 것”이라며 “교황께서 내후년까지 이루어질 시노드에서 변화와 혁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시노드 초기 시작부터 새 교구장이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신부는 “정 대주교님은 특별히 젊은이들의 사목에 많은 관심과 비전을 갖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가르멜 수도회 로마 총본부에서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담당 부총장으로 일한 경험을 통해 로마 교황청과 긴밀한 소통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는 1961년 대구에서 출생, 1984년 서울대학교 공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 편입해 1986년 가르멜회에 입회했습니다. 1992년 7월 16일 가르멜회 인천수도원에서 사제품을 받았고 2000년 로마로 유학을 떠나 로마 교황청 성서대학(Biblicum)에서 성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 수도원에서 여러 보직을 거친 후 로마 총본부에선 최고 평의원으로서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담당 부총장으로 일하다가 2013년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에 임명됐습니다. 2014년 2월 5일 주교품을 받은 후 교구에서는 서서울지역 및 청소년·수도회 담당 교구장 대리를 맡아왔습니다.